

2004년도 협동연구
제1차 지정주제지원사업 신청요강

2004. 4.

한국학술진흥재단

개 선 사 항

항목	2003년	2004년	비 고
1. 지원방향		○ 연구와 교육의 연계강화	
2. 지원규모	○ 신청연구비 제한 없음	좌동 - 연구비 규모별 지원	
3. 지원기간	○ 6개월 1년	좌동	
4. 신청 -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최근 5년이내 연구업적 - 인문사회분야: 2편 - 자연과학분야: 3편 ○ 연구계획서7부 (다년과제는 수행실적 포함) ○ 재단DB에 연구계획 파일첨부	좌동 재단등재(후보)학술지도 인정 ○ 모든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화	연구지원의 Digital화 Paperless 연구 행정
5. 심사 - 심사절차 및 심사내용 - 심사항목	1단계: 행정요건심사 2단계: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서 심사 가. 연구주제 (50점) - 독창성 (30점) - 학문발전공헌도 (20점) 나. 실현가능성 (50점) - 연구내용 및 방법 (25점) - 선행연구 (10점) - 연구역량 (10점) - 연구비적정성 (5점) 3단계: 종합심의 - 연구비 배정 및 선정	좌동 좌동 가. 좌동 나. 연구계획 (50점) 좌동 3단계: 면담심사 4단계: 종합심사 좌동	

항목	2003년	2004년	비고
6. 예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배정(10%) ○ 신청건수(45%), 신청금액(45%) ※ 10%는 신축 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배정 10% ○ 추세변동 40% ○ 신청현황 40% ○ 정책적고려 10% 	학문의 균형적 발전도모
7. 지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주제지원(지정주제는 예산의 10%내외 지원) - 지정주제는 년 2회 공모 	좌동	
8. 연구결과 보고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전년도와 동일 ○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제재기간 3년 이하로 완화 	
9. 연구결과 follow-up system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등)을 게재하여야 함	좌동 (인력양성실적 등) 추가	
10. 간접연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교) 및 학술단체 등 ○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2002년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5% 기타기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2003년도 이하 좌동 -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등급: 15% B등급: 좌동 C등급: 좌동 기타기관: 좌동 	

I. 사업목적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정책적 주제를 선택, 수시 지원하여 연구성과가 학문경향을 선도하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실제적으로 기여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연구투자 성과가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고자 함.

II.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700,000천원 내외

2. 지원방향

가. 지정주제 연구과제 지원

최근의 학술연구 경향을 선도하거나 시급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를 사전 선정하고 공모 지원

※ 시급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에 대해 수시 공모 지원형태로 전환하여 국가, 사회 및 학문발전 연구진흥의 효율성 제고

나.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정착

1) 연구업적 신청자격 최소화

연구업적 신청자격 기준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수의 우수한 연구자 및 소외분야의 연구 활성화 도모

2)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 체제 구축

연구비 신청 자율화를 통하여 중·소규모 단위 연구주제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연구역량 제고

- 3) 연구계획서 서식의 간소화
모든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화

다. 연구신청제도 개선

연구지원 신청의 온라인화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라. 창의적 연구계획 지원 강화

- 1)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학문적 지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심사항목을 연구주제와 연구계획으로 설정
- 2)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연구계획과 연구업적간의 연계성 심사로 전환하여 창의성이 높은 연구계획 지원 강화
- 3) 연구비 과다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연구비 조정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조정 비율 강화

마. 연구비 규모별 경쟁지원

연구비 규모별 예산배분 및 경쟁

바. 연구와 교육과의 연계 강화

연구결과를 강의 등 교육에 적극 활용을 유도함

3. 지원분야, 형태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나. 지원형태 : 재단이 지정한 주제에 한하여 공동연구

지정주제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로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붙임 4. 참조)

다.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5조 해당자로서 2인 이상의 공동연구과제(신청자격

참조)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구 분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일반연구비	4,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대형연구비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초과

- 신청상한액 제한 없음
-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심사강화(대형연구비 면담심사 실시 등)

나. 지원기간 : 6개월 또는 1년

Ⅲ. 신청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공지사항)
2. 온라인 신청 기간

2004년부터 연구지원 시스템의 전면 디지털화로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file을 동시에 탑재함

가. 신청기간 : 2004. 4. 23(금) 09:00 ~ 2004. 5. 11(화) 18:00 까지

나.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신청 및 파일을 탑재함

※ 재단 1차 공모사업 신청자도 동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의 연구참여자가 신청한 동 공모과제는 신청이 자동 취소됨

※ 신청(입력)내용 : 온라인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숙지

3. 온라인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연구지원 신청예정자는 온라인 신청전 우리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등록」에서 본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 후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
- (2)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신청자격 및 요건과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참조)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3) 연구계획서 파일탑재는 연구지원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요약문(별첨 양식 2 및 3)을 한글 또는 MS워드 중 1개를 택일하여 파일로 작성
- (4)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은 제한 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놓아야 함(온라인 신청 시 그 사유를 입력함)
- (5) 시간강사가 연구책임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연구지원 중앙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6)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구입은 원칙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해당 기기(문헌)의 보유현황(기기(문헌)명, 기기사양(출판사), 구입년도, 보유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온라인 신청 시 해당기기 보유현황, 활용계획 등 입력)
- (7) 원활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3일전 입력화면을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람

※ 주요내용은 신청요강 및 FAQ 참조

나. 온라인 신청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탑재

○ 신청자 공통 : 붙임 2. 연구계획서를 작성 탑재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

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파일 탑재결과(PDF file) 확인과 아울러 접수번호를 확인함

(가)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나) 대표업적은 " 3.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장 우수한 논문을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은 2편, 자연계열을 3편만 선택함

※ 대표업적별 "연구업적 요약문"을 별지에 각각 작성

(다) "연구기기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사양, 보유대수) 및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을 온라인 신청 전에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해당 기기 관련사항을 파악하여야 함

(라)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연구참여 수당 제외)이 전체 연구비의 70%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마)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서(비치장소, 사용계획,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 등)를 입력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온라인 신청 입력 사항 수정 및 연구계획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에는 동 제반사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원활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람

※ 기한내 미 탑재시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확인 결과 파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술정보팀 02-3460-5538으로 연락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모든 입력내용(연구계획서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

(2)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중앙관리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를 제출 받고, 2004. 5. 12(수) 18:00까지 온라인 신청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부서는 연구비 신청자로부터 접수된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3.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199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A&HCI급·SSCI급·SCI급(SCI 및 SCIE 등))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 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 2편 이상인 연구자
- 자연계열 : 3편이상인 연구자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단,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급 등의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연구지원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 5조
 제5조 (지급대상)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의 대학(대학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교원
2.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연구원
3.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예술활동을 지원받는 과학자·예술가 또는 그 단체
4. 대학의 시간강사
5. 박사학위가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연수중인 자
6. 기타 학술연구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연구보조원은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정기간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며, 협약당시 자격기준을 연구 종료 시까지 적용함(연구기간 중 신분 변동 시에도 보조원으로 인정)

4.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내 결과보고 미 제출자,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2004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및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강의과건 수혜자 중 지원기간(연구기간)이 중복되는자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 ※ 대학소속의 전임교원이 학회 등 학술단체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학술단체를 통하여 신청 및 연구해야만 하는 사유
 - 기자재 구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 기자재(학술문헌 포함)를 구입하여야 할 경우 구입 기자재의 설치장소, 사용계획,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 참여 제한

- 본 협동연구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

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4. 12. 31. 이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 경우는 연구 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한국(BK)21사업 참여자(지역대학육성분야사업 제외)는 재단 연구지원사업에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음

※ 연구비 신청 참여자 중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 심사	신청자격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 및 면담 심사단
3 단계	면담심사	2단계 심사내용 확인 및 점검	
4 단계	종합심사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확정	재단 및 교육인적자원부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저촉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심사(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주제(50점) : 독창성 및 학문발전의 공헌도
 - 연구계획(50점) :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연구역량, 연구비의 적정성

○ 심사항목 및 배점 : 6개항목 100점

- 신청자의 연구업적·계획과 지정주제와의 일치여부를 우선 판단

※ 적정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서 패널심사시 연구에 필요한 적정연구비 조정 및 연구보조원 수의 적정성 검토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구주제 (50)	독창성 (30)	연구주제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협동연구주제로서 적절한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방법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 소외된 학문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 연구 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계획 (50)	연구 내용 및 방법 (25)	연구내용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연구에 타당한 연구방법인가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추진과정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 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10)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인용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역량 (10)	연구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보조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연구여건(시설, 기자재 등)이 충분한가
		연구실적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연구비 적정성 (5)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별로 조정 액수를 쓰고, 그 일치 정도를 비율로 환산한다. ※ 연구비 조정감점 : 신청액 대비 조정을 10% 마다 5점 만점에 1점 비율로 감점 적용 	

※ 면담심사 대상과제는 가채점후 면담심사에서 최종점수화(표준점수제에 의함)

3) 제 3 단계 심사(면담심사)

- 심사대상 : 대형과제(총액기준) 중 전공심사단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면담심사를 필요로 하는 과제
- 심사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심사
- 심사내용 : 2단계 전공심사에서 미확인 또는 의문사항 확인 및 연구계획 조정가능성 확인(연구범위, 연구규모 등)

4) 제 4 단계 심사(종합심사)

- 심사내용 : 선정기준 및 예산배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구 분	내 용	비 고
시 기	지원과제 확정 후	
금 액	지원결정연구비의 100%	

다. 연구비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서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연구비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1. 제출방법 : 각종 보고서는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을 통해 제출함

2. 중간보고서 제출

가. 제출대상: 선정된 모든 과제

나. 제출시기

- 6개월 과제: 연구개시후 3개월 이내
- 1년 과제: 연구개시후 6개월 이내

3. 결과보고서 제출

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단, 연구기간의 50% 경과 후)

2)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단, 연구결과보고서 제본하여 30부 제출)

3) 제출자료

가) 연구결과보고서(재단 소정양식)

나)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집행 정산내역 포함)

다) 연구요약문(국·영문)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작성 함

4)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포함) 신청을 제한함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5)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2-○○○○○○)"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4-042-○○○○○○)"

※ 재단이 아닌 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의 일부 보조 표기 또는 병기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논문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원문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 실시
 - 연구현황, 통계 등의 제공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과 「기술이전촉진법」 에 의해 국공립대학 소속 교수의 직무발명 관련 산업재산권은 ‘산학협력단’ 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소유로 함
- 사립대학 소속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의해 취득한 산업재산권도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이 소유함
 - 연구책임자 등 연구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의 내규에 따라 처리함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연구책임자가 국내 소재 외국·국제 학술연구기관 소속의 경우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자격 박탈

다.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등)을 게재하여야 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교) 및 학술단체 등

2. 지원기준

- 2003년도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

3. 지원비율

- A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5% 지원
- B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0% 지원
- C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5% 지원
- 기타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3% 지원

4.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지급

VIII. 슈퍼컴퓨터 활용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학술활동 공동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단의 연구과정 수행자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일정 자원량(재단과 KISTI가 협의하여 결정)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해당분야

- 전 학문의 슈퍼컴퓨터 응용계산 과학분야

2. 활용방법

- 연구계획서상에 슈퍼컴퓨터 응용분야 활용여부를 기재한 후 과제선정 후 KISTI 슈퍼컴퓨팅 센터의 슈퍼컴퓨터 활용시 재단과 KISTI와의 협약에 따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는 연구비 산정시 전산사용료에 슈퍼컴퓨터 사용료를 계상할 수 없음
- 선정과제중 슈퍼컴퓨터 활용과제들은 연구목표 달성에 적정한 슈퍼컴퓨터 사용량을 KISTI에 별도로 제안하여야 함

3. 활용절차

- 과제신청시(온라인 신청 포함) 슈퍼컴퓨터 활용여부 확인(신청자) → 과제선정 → 선정과제 KISTI로 통보(재단) → 연구자와 KISTI의 접촉(신청자) → 연구진행

※ 단, 슈퍼컴퓨터 활용 여부가 과제선정 및 연구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IX. 기타사항

- 심사학문 분야는 재단에서 정한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분야명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바람.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 2팀

TEL (02)3460-5582~6 FAX (02)3460-5590

재단 홈페이지(<http://www.krf.or.kr>)

【별첨 1】

2004년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표

항목	세부항목	산정 · 집행기준
①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참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및 박사 과정생 · 박사급연구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급연구원이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하는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생 : 연 240만원 이내/1인당(월 20만원) -석사과정생 : 연 480만원 이내/1인당(월 40만원) -박사과정생 : 연 720만원 이내/1인당(월 60만원) ○ 박사급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사급연구원 : 연 960만원 이내/1인당(월 80만원)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 및 기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는 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연구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필요한 국내의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 · 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등 ·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 · 외 출장비 및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 유인물비(인쇄비,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관련된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 현상, 자료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 공공요금 등 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서 발생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300만원/1인당 이내 -실제 소요액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국외여비는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자료수집 등으로 당초 계획에 따른 최소액 인정(왕복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② 연구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함) · 문헌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내용년수 2년 이하인 시약, 기구, 소모성재료, 부품 등의 구입과 시험분석에 필요한 경비 · 장비사용료(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기기)의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연구기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상의 내용년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물건의 형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전산장비, S/W포함)와 부수기자재(개인용 PC 및 프린터의 구입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게재료 및 연구결과 홍보비(특허출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대내 · 외 보유기관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실제 소요액 -연구결과와 발표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교육부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과제에 한함)

- ※ 연구에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신청할 것(단, 본 사업 이외의 재단 여타 사업의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수당 혹은 연구 활동비 중 1가지를 계상할 수 있음)
- ※ 여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
- ※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 연구비 신청시에는 특정 세부항목(“연구참여 수당” 제외)이 전체연구비의 70% 초과시는 사유서 제출
- ※ 학술단체에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구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서(비치장소, 사용계획, 연구종료 후 활용 계획 등)를 연구지원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 다년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산정 · 집행기준 내역을 신청기간별로 입력하여야 함

【별첨 2】

연구기간	· 1년과제()
	· 6개월과제()

연구 계획서

(사업명 : 협동연구 제1차 지정주제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I. 연구계획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연구계획이 다년과제 또는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필요성을 추가하시어 총 15 Page이내(참고문헌은 포함)로 기술하십시오.
 - 참고 문헌 목록은 연번, 논문명, 게재지, 권호, 년월만 작성함
- ※ 본 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연구수행계획

1.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 향후 연구수행 및 결과에 따른 책무는 모든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동연구에 따른 실질적인 역할 분담내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신청자 또는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연구참여 구 분	연구역할 분담 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비 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갑)			
(을)			
(병)			
...			

2. 연구 추진 계획

년 월 일	연 구 수 행 내 용	비 고
2004. 7		
8		
9		
10		
11		
12		
2005. 1		
2		
3		
4		
5		
6		

【별첨 3】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요약문 번호	
-----------------	------------------------	--------	--

※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구업적 요약문

업적 형태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연구업적 제목 (논문, 저·역서, 특허)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별첨 4】

2004년도 협동연구
제1차 지정주제지원사업 지정주제 목록

순번	주 제 명	연구기간
1	인적자원개발 관련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안	6개월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learning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12개월
3	대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침 개발 및 점검 체계 구축	6개월
4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5	고학력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
6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범사회과학적 탐색	"
7	교육만족지수 및 지표 개발 연구	"
8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분석	12개월
9	외국박사신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6개월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12개월
11	UNESCO집경생물권 보전 지역지정에 대비한 우리나라 DMZ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6개월
12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의 온라인 상의 연구결과물의 표준화 및 서비스체계 수립	"
13	주요 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12개월
1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6개월
15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국가혁신 패러다임 연구	"
16	선진국의 지역혁신정책 비교 연구	"
17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방안	12개월
18	문화 산업을 통한 동북아 허브 국제의료서비스 콤플렉스 조성	"
19	동아시아 3국의 서양철학 수용과정 비교 연구	"
20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간 문화경험 및 문화인식 비교	"
21	세계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 양상 및 대응 전략 -종합적·역사적 접근	"

【별첨 5】

2004년 협동연구 제1차 지정주제 내용

주 제 명	1. 인적자원개발 관련 DB 및 정보인프라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전망과 관련된 각종 지표와 분류체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관성과 체계성 부족 - 인력수요 측면(노동시장)과 공급측면(교육)의 정보인프라 괴리로 인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관련기관 : 통계청, 직능원, 한국교육개발원, 중앙고용정보원 등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HRD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및 각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 시급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DB 구축방안 연구(교육부, 2003) ○ 교육통계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원자료서비스 방안연구(교육부, 2003) ○ 인적자원개발 통계 정보 DB 구축방안 연구(교육부, 2001) ○ 교육통계정보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교육개발원, 2000) ○ 인적자원 조사 통계 체제 구축방안(교육개발원, 200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지표와 분류체계 등의 일관성과 합리성 제고 ○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연계하는 기초통계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력수급 전망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된 정부의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2.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learning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및 정보화기술의 급진전으로 인해, 교육·직업훈련 및 자격, 기업교육 등 각 영역마다 원격교육 또는 e-learning 방식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관련부처 :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정통부 등 ○ 이러닝은 비용절감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식·학습격차의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EBS를 통한 인터넷 수능강의 등은 이러닝활성화에 상당한 영향 예상 ○ 또한, WTO 등 시장개방 대비를 위해서도, 원격대학·인터넷통신훈련기관, 기업 등에 의한 이러닝 활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아태지역 이러닝 현황(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 이러닝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원격대학 관련 법제정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 이러닝을 통한 인적자원개발방안(직능원, HRD 정책포럼 제13차,2002)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을 통한 각종 교육훈련 등의 효과성 제고 및 이러닝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내실화에 기여 ○ 이러닝 학습자·소비자의 학습권 보호 ○ 국내의 교육·직업훈련·자격 부문에 있어서 이러닝의 효과적 활용 및 부문간 연계 체제 구축 지원 ○ 시장개방 대비 이러닝 관련 국가경쟁력 제고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닝산업발전법’ 공포(04.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자부 소관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3. 대학 실험실 안전관리 지침 개발 및 점검체계 구축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실험실에 종사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실험실 안전에 대한 정보 및 인식 부족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99. 9), KAIST 항공우주공학과('03. 5)의 실험실 폭발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발, 관련 정보 제공, 실험실 안전의 정기점검·지도 등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 마련 필요 ○ 효율적인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련(지침) 제정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정책연구(1999년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표준화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 : 전북대학교 정팔진 교수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실험실별 안전관리 및 점검 매뉴얼 개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유해한 환경의 개선으로 실험자의 건강 확보 ○ 대학 실험실의 정기점검체계 구축 ○ 실험실 종사자의 실험실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예방의식 고취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학교 이정전 교수 등 국·사립대학 교수를 주축으로 「사단법인 대학환경안전협의회」가 '04. 3월에 법인 설립되어 우리부와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4.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된 바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의 연계사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업무 추진 지원은 물론, ○ 주5일 수업에 따른 학교 운영과 사교육절감 방안의 하나인 ‘e-learning’교육 강조가 자칫, 문화예술교육과 정서교육의 소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 차기 교육과정의 수시-부분 개정으로의 변화에 문화예술교육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술교육 활성화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예술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과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초·중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전개될 주5일 수업제와 사교육절감방안 등을 고려하면서, 초·중·고등학교(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의 학교와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 연구가 되어야 함.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5. 고학력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로 대졸남성 경제활동 참가율(93%)에 비해 현저히 낮다 (McKinsey, 2001). 더군다나 취업 후에도 육아, 가사부담, 직장내 공식, 비공식적인 성차별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높아, 대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4세에 정점을 이룬 뒤에 결혼, 출산과 함께 하락하는 L자형을 이룬다 (김태홍, 2000). 이렇게 전업주부로 지내던 3,40대 대졸여성들은 육아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많은 수가 재취업을 위해 또는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활동을 갖기 위해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을 찾는다 (장서영, 2002). ○ 예를들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27세 이상 성인여성학습자는 1995년에서 2000년동안 240%가 증가했고, 2003년 현재 전체 여학생의 71.7%를 차지한다 (교육부, 2003). 대학원의 경우 27세이상 성인여성학습자는 1990년에서 2000년동안 480%가 증가하였고, 2003년 현재 전체 여학생의 60.3%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성인여성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고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1994년 29,000명에서 2000년 291,835로 10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2000). ○ 성인 여성 학습자는 기존의 20대 여학생과는 다른 특수한 교육동기와 필요, 이해를 가지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의 개발 및 행정지원이 요청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 여성 학습자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교육기관 진입 동기를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성인 여성 학습자의 학습 경험에 대한 이해, 성인 여성 학습자의 필요에 적합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미식. (2002). 여성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가능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8(3), 121-151.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결과의 기대효과</p>	<p>첫째, 성인여성 학습자의 필요와 이해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 내용,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행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은 새로운 수요자로 부상되는 성인여성학습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성인 여성 학습자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학이 21세기에 요청되는 새로운 역할, 즉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새롭게 정립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p> <p>둘째, 대학이 성인 여성 학습자들의 교육동기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학력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육아 의무를 마친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대학에 재입학할 때, 대학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재취업을 확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고학력 여성의 활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6.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범사회과학적 탐색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성의 시대(era of complexity) 및 전자적 융합의 시대에 복잡성과학(science complexity)을 통해 정책문제의 구조적 본질에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 ○ 인력양성정책에 대한 분과학문별 접근은 문제에 대한 파악은 물론 문제 해결책 모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을 포함한 범학문적 접근이 바람직함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력양성정책 문제에 대한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교육학, 언론학, 심리학 등 분과학문별 접근을 통한 정책연구가 대다수인 현 상황에서 공시적(synchronic)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범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고전적인 실증주의적 학문지향을 통한 분과학문별 연구는 인력양성정책의 본질 파악과 해결책 마련에 부분적인 대답만을 제시해 주고 있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에 기여 ○ 범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국가의 인력양성정책의 본질과 정곡을 해석하고, 해결책 마련에 기여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정책의 전환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학진 지원 정책에 대해 시범적으로 연구를 수행 ○ 환경문제, media 문제, 교육문제 등 몇 가지 국가정책문제를 융합과 복잡성과학의 논리를 통해 시범적으로 범학문적인 연구를 수행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7. 교육만족지수 및 지표 개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련 주요 집단(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 특히 만족정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교육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의 교육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잣대로 삼아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관련집단(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정도를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도구와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본 연구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교육에 대한 만족정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만족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만족지수 또는 지표를 개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만족지수와 지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교육정책 Monitoring’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만족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지수화한다면 교육에 대한 교육관계집단의 의견과 만족도를 시기별/지역별/학교급별 등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정모니터링 추진과제 ○ 연구진행시 교육인적자원부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8.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은 주로 기초연구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관계로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초연구의 성격상 그 지원효과가 점진적으로 그리고 장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고 하거나 단순한 지원 통계 및 SCI관련 수치만으로는 예산당국,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기초연구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순수학문의 발전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개발연구 및 응용연구의 발전, 경제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진국의 사례 분석, 정량적인 분석, 그리고 비용-효과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의 필요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학술연구지원 시스템 연구(2002) 조만형 ○ 학술연구지원사업평가·조정연구(1998) 안병영 ○ 학술연구지원의 효율성 재고에 관한 연구(1998) 곽진 ○ 학술연구지원사업평가·조정연구(1998) 정일환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 마련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통계 및 분석시스템 구축 ○ 기초연구지원에 대한 방향 설정과 효율화 방안 탐색·제시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행시 한국학술진흥재단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9. 외국박사신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어 매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학위부정취득과 관련하여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회에서도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동 연구를 통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목적 및 대상 등 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을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됨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신고업무의 현황 파악, 목적 및 범위 등 신고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기준설정으로 신고자와 신고업무 담당자의 업무정확성 제고 ○ 신고업무 수행시 계속적으로 문제시되는, 유사한 경우의 문제 가능성 사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박사 학위자에 대한 시비 감소로 업무 추진의 신속성 확보, 해외학위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조사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 - 학위제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러시아 및 유럽의 학위제도 조사 - 해외 박사학위의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인증방안 도출
기타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위원회 인증제 구축 시행(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진행시 한국학술진흥재단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치제도의 개선 및 중앙권한의 지방위임이 증가하고 있고 -선진 외국들도 분권형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표중화를 시도하는 상황 ○ 국내에서도 지방분권을 정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율적 노력과 국가의 정책지원 노력은 미진한 실정 -자치역량에 대한 이론 구축과 실태분석에도 소홀한 실정. ○ 분권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선진외국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발전시킴으로써 분권형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지표를 개발할 필요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서비스 생산성을 평가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구축하는 노력은 일부 시작단계에 있으나 ○ 선진외국사례 도입과 다차원적인 이론 정향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실태 분석과 이론화 작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성과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도 일부 있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종합 모형의 구축에는 소홀한 실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에 필요한 조직이론과 지역사회혁신이론 체계의 재정립 ○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권한 수권능력 제고에 필요한 이론 매뉴얼 기능 ○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제공.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혁신이 가능한 정부가 21세기의 모범적인 국정패러다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분권형 국정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지표의 개발과 적용 노력은 매우 절실한 과제

주 제 명	11. UNESCO 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에 대비한 우리나라 DMZ 자연 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p>환경의 보전협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DMZ)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보전가치로 인해 하바드대학의 E.O.Wilson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하여 소개될 정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DMZ가 국경분할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며, 장차 UNESCO 접경지역지정의 우수 생물권으로의 선정에 대비한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과 함께 나아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현지내(<i>in-situ</i>) 보전의 사례로 DMZ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현재 UNESCO MAB(Man and Biosphere)는 전세계적으로 모두 5곳의 접경생물 보전지역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접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환경을 조사함으로써 UNESCO가 이를 접경지역보전의 대상으로 지정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DMZ 관리의 정부부처는 접경지역 생물권 보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잘보전된 우리나라 DMZ 생물다양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향후 UNESCO의 지정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남북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환경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기타 참고사항	<p>DMZ 내의 자연환경조사도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을 위해 자연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p>

주 제 명	12.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의 형태 표준화 및 서비스체계 수립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물이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 필요 ○ 모든 연구결과물은 전자자료의 형태로 제출될 수 있도록 각각의 연구 형태, 성격 등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결과물 제출방식의 세분화된 지침 필요 ○ 기초학문연구 자료의 통합적인 축적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필요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면에 치중되어 연구결과물 작성지침으로 적용하기가 곤란 ○ 연구결과 제출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연구분야별 특성과 서비스를 고려한 결과물의 형태와 서비스 체계에 대한 표준화 및 방안 연구는 없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정 중에 수집된 원자료와 연구결과의 표준화된 형식 제시로 제출자료의 형태가 일원화 될 수가 있음. ○ 연구결과 관련자료의 표준화된 형태로 디지털화가 용이 ○ 연구관련자료의 디지털화로 연구자들간의 공유 가능 ○ 인터넷 기반의 연구결과 원문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용이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 디지털화와 2기 사업의 연구결과 제출형식 표준화를 위해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는 시급한 정책과제 ○ 연구진행시 한국학술진흥재단측과 상호 긴밀하고 심층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한 연구임

주 제 명	13. 주요 외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연구의 필요성	<p>참여 정부는 급변하는 21세기 행정환경에서 정부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서, 고위 정책관리직 공무원들을 별도의 체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2006년에 도입할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바,</p> <p>유사제도를 앞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 각 국에서의 제도 운영현황 및 그 성과를 연구하는 작업은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구상에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국내에서는 1999년 도입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가 선진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선진국 고위공무원단제도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문헌은 전무하다. 외국 문헌에서도 각 국의 해당제도를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선진 각 국 고위공무원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는 고위공무원단의 구성방법, 직위종류, 충원, 성과관리, 역량평가, 교육훈련, 보수, 적격성 심사와 같은 제도구성은 물론 제도운영의 성과 및 부작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사전 검토와 예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보다 높은 제도설계를 가능케 할 것이다.</p> <p>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는 인사행정학의 차원에서도 비교 연구로서의 가치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p>
기타 참고사항	

주 제 명	1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각국이 기존의 통제위주의 예산회계제도를 성과위주의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성과위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재정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업무의 신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정보의 질적 수준과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분류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디지털화를 통하여 적절한 관리 정보의 제공은 물론 정책결정에의 활용, 정부개혁과 사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회계, 예산분류, 전산화가 조화되는 시스템 구축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제도의 개선,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 사례의 소개에 그치고, 이론적인 탐구가 대부분임. ○ 학제간 연구와 실무에서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미국, 뉴질랜드, 영국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프랑스, 스페인 등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한 국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사업별 비용의 정확한 측정으로 사업의 효율성제고 ○ 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위한 자료의 제공 ○ 예산편성 및 결산을 위한 최신 자료의 제공으로 예결산 심의 기간의 단축 가능. 전년도 예산운영의 피드백 촉진 ○ 정부의 투명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자료의 제공으로 주민 통제의 촉진 * 예산회계시스템의 모듈화 방안을 강구 기금, 물품관리, 국유재산, 채권 등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으로 정부자원의 효율화
기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학, 재무행정, 정부회계, 전산 등 학제간 연구 필요 ○ 이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 ○ 선진국사례 벤치마킹시 한국 상황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주 제 명	15. 네트워크 사회의 구조와 국가혁신 패러다임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능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위계적인 사회구조보다 네트워크형 사회구조가 출현되고 있는 상황 ○ 혁신이 국가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 사회구조혁신을 고무하고 추동하는 토대를 형성 ○ 네트워크 사회의 출현과 이에 조응하는 혁신주도형 국가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 제시할 필요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	<p>마뉴엘 카스텔(김목한 박행웅 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p> <p>한국공공정책연구소, 1998,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등</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미래상을 제시 ○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혁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에 대한 좌표를 제시 ○ 향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연계하여 고찰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제공
기타 참고 사항	

주 제 명	16. 선진국의 지역혁신정책 비교 연구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가 요소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 각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 지역의 부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따라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선진국 각국의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 제기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	박동 외, 2004,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등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관련 정책형성에 참고자료로 활용 ○ 해외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혁신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 ○ 해외 지역혁신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성공적인 정책형성의 배경과 조건에 이행을 증진
기타 참고 사항	

주 제 명	17.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의 필요성	<p>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제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교수들은 교재와 부교재 그리고 교육 보조재료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과목별 교수요목과 교수 내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음.</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해외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해외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보급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임.</p>
기타 참고사항	

주 제 명	18. 문화 산업을 통한 동북아 허브 국제의료서비스 콤플렉스 조성
연구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의료산업콘텐츠 중심의 콤플렉스 조성 ○ 문화 산업을 활용하여 중국의 거대의료시장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제의료 서비스사업과 연계된 미용교육관광사업, 의료산업단 조성, 학술교류, 의료기자 재전시 등을 실시하여 국내외 의료산업의 중추적 역할의 필요성 대두 ○ 의료산업의 동북아 허브를 구성하여 향후 의료시장개방에 대처 [참고] 동북아 허브 국제의료산업단지 조성의 배경 ○ 중국 인구의 6%를 차지하는 신흥계층, 매년 7%이상의 경제성장, 4조 7천억의 의료시장과 연 증가율 14%등 고도성장과 잠재적인 의료수요의 증가 등과 맞물려 의료산업의 활성화 기대 ○ 중국인과 동남아인, 동북아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문화와 미용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의료시장의 침체우려에 대한 대응방안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임플란트 연구센터 및 의료서비스 센터 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국내 대학(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 의료시장의 침체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보고서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허브 국제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이다. ○ 의약분업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국내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치과학 분야에서 임플란트 기술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의료산업기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제의료산업의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마련.
기타 참고사항	

주 제 명	19. 동아시아 3국의 서양철학 수용과정 비교연구
연구의 필요성	<p>세계화(지구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다. 온갖 생명과괴 현상, 생명경시 풍조, 물질만능주의 등이 판을 치면서 인류가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 현금, 동아시아의 생명관, 인간관, 가치관이 학자들의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동서통합의 사상 및 가치관을 찾자는 요구도 들려온다. 이런 시점에 동아시아 3국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양철학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서양의 근대 가치관을 무조건 신봉하다 시피하며 숨가쁘게 지내온 지낸 100년, 이제 동아시아 3국은 각기 자신들에게 근대성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자신들에게 끼친 공과 화는 무엇이었는지, 탈근대의 시대인 정보화 시대에 동아시아 3국의 역할은 무엇일지를 냉철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 동아시아 3국은 서양철학의 수용태도와 그 과정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한다.</p>
선행 연구 및 유사연구 사례	<p>최근에 지난 100년의 근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기상, 『서양철학의 수용과 한국철학의 모색』(지식산업사),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열린책들), 강영안,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인가』(궁리), 백종현, 『독일철학과 20세기 한국의 철학』(철학과현실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철학연구 50년』(혜안), 윤사순/이광래, 『우리사상 100년』(현암사) 등. 일본과 중국에서도 유사한 연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언어권의 전공자들이 협동연구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3국의 서양철학 수용과정을 비교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p>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p>환태평양 시대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3국의 근대화과정을 추적하며 그 사상적 배경의 같음과 다름을 연구조사하게 된다. 동아시아 3국의 철학사상이 어떤 점에서 통하고 어떤 점에서 독특한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동서 사상의 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현 세계학술계에 주도적인 연구경향을 조성해내며 새로운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기타 참고사항	

주 제 명	20. 한국사회에서의 세대간 문화경험 및 문화인식 비교
연구의 필요성	<p>참여정부의 시작과 함께 새로이 불거진 한국사회의 반목 요인은 소위 2030, 5060으로 회자되는 세대간의 갈등이다. 세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령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을 지칭하지만, 각 세대는 다른 세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각각의 세대가 독특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이유는 각각의 세대집단이 성장하며 각 세대 특유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준거로 현재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다른 세대와는 구분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사회학과 가족학 분야에서 세대 구분이나 이에 따른 각 세대의 특성을 서술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이로써는 세대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하기에, 각 세대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이로 근간으로 한 현재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세대를 총체적으로 조망해볼 필요성이 있다.</p>
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	<p>현재까지 사회학과 가족학을 중심으로 연령에 따른 세대 구분과 세대의 특성을 서술한 연구와 사회복지학에서 일부 세대의 (예를 들어 노인층, 청소년층) 문제를 제기한 연구가 있다. 이와 별개로 일부 기업연구소에서 변화하는 구매층을 파악하기 위해 2002년 월드컵에 편승한 R세대, 2003년 대선과 연관된 P세대 등 기존의 연령을 중심으로 구분한 세대 연구와는 차별되는 연구도 있다.</p>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p>본 주제는 한국사회의 세대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지향하여,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동시에 세대간의 갈등 해소와 관련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p>
기타 참고사항	

<p>주 제 명</p>	<p>21. 세계화에 대한 각국의 반응 양상 및 대응 전략 - 종합적·역사적 접근 -</p>
<p>연구의 필요성</p>	<p>세계화는 이미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한 바 있으나 그 복잡하고 유동적인 매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이해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계화가 경제적 차원은 물론이요 정치적, 문화적 차원까지 수반하는 현상인데도 연구자들이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더욱이 세계화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국제적인 세력관계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연구자들이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종합적,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선행연구 및 유사 연구사례</p>	<p>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종합적이고 통시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p>
<p>연구결과의 기대효과</p>	<p>세계화를 일방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면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 한국이 세계화 추세에 올바르게 대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본질과 특색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p>
<p>기타 참고사항</p>	